

“ 사이비(似而非) 신자 ”


■ 이종윤 원로목사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다. 명품을 모방하여 진짜처럼 팔고 있는 짝퉁 물품이 있는가 하면 얼굴까지 뜯어 고쳐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는 이도 있다. **애국자라는 미명하에 자기 배만 불리는 거짓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진리의 산실인 교회 안에까지도 명예를 탐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이비(似而非) 신자들이 득실거린다.** 신자의 진위(眞僞)를 분별하는 가름대를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정신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자기를 부인(否認)한다는 말은 참 크리스천이라면 이해가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인간적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어떤 시도나 노력을 뒤로 던져 버리고 우리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신의 어떤 공로를 근거로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려는 노력을 부인하는 것이다. 할 수 있다고 하면 무엇이든 이를 수 있다는 소위 긍정적 행동이나 적극적 사고를 기독교 신앙으로 오해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 세상은 어느 것에 대해서도 “아니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 문화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비현실적이고 가혹하게 들린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죄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죄를 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책을 느끼거나 일종의 변명으로는 충분치 않다. 근본적으로 회개란 정서나 말의 문제가 아니다.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내적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죄 중에는 버리지 않아도 될 만한 것은 없다. 생각나는 죄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무엇이든 거부하고 버리는 것을 뜻한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모두 거부하는 것이다. 우리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재물에 대한 생각 심지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거부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에 대한 적극적 대안이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을 보았다면 ‘흉악한 범죄자가 사형장으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처형을 당하는 시점에 이르기까지 즉 죽기까지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원으로 삼정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예” 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 자신에 대하여는 아니요라고 말해야 한다. 그것은 노예적 자세가 아닌 자유인의 자세며 힘들다고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운명으로 알고 체념하기보다 하나님 뜻을 좇아가는 신앙이다. 하나님의 뜻은 슬픈 것이 아니다. 그 길은 즐겁고 그 첩경은 평강이다. 그러나 때로 그것이 우리에게 슬퍼 보인다. 슬퍼보이는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다.


뒷면으로 계속 

앞면에서 계속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방법을 진솔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의예 누가 있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우리는 지금 자신의 삶을 영위하려는 노력을 그리스도를 위해 포기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가치 있고 정말 불가분해적인 것을 분토와 같이 버릴 수 있는가? 우리의 기쁨은 세상적 기쁨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기쁨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든지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의 풍성함을 막는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아니요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의 기쁨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 것이다.

-한국장로신문 [1298호] 2011년 11월 19일에서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astor: David John]
* Call to WorshipJohn	4:24..... Pasto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Deacon Jabez Yoo
Hymn36.....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John 2:1-11	Pasto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Offering Hymn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astor
Anthem	Congregation
Sermon “The Baptism of Jesus Christ”	Pastor
* Hymn 85	Congregation
* Benediction	Pastor
* Lord's Prayer Song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서준권	
교육목사 윤누가	교육전도사 최근영
전도사(교육담당) David John Khokhar	
신 교 사 강아름주하나, 김원호(동아시아),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마켓잔(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울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정상진홍성임(말라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캐나), 김종일백순미(터키노동자), 훈쿠야 땅 땅 쩌 코 카 마이 랑 사무알 레이 난 쌍 잔다 사무 키울 랑 호라 라베 벤 비에 마웅 차 짜우 미카엘(미얀마) 필리몬 프로산뜨 수레시 수바쓰 이경엽 알로롱 비시누쁘도 보디소뜨 린쯔 수관준 방글라데세, 김택식 윤왕모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덕수(군선교)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서 울 교 회 장 로 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 종 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안식) 박 노 철 Senior Pastor Park, No Cheol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밤이 오기 전에 ”

■ 요 9:1-5

본문을 보면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이 너무나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답변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을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였고,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오자 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요 9:4-5)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들을 제자들도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를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의 힘이 되어 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보다는 제자들처럼 정죄하는 눈으로 저들을 바라봅니다. 나에게도 허물과 죄가 있는 것을 모른 채, 상대방을 죄인으로 여기면서 비판하는 우를 범합니다

1.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한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우실 계획을 가지고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가장 값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세상에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큰 병을 앓아 시력을 잃었고, 귀로는 들을 수 없게 되었으며, 입으로는 말도 할 수 없는 ‘삼중고’의 가련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보다도 더한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다. 그녀의 스승인 앤 설리반은 헬렌 켈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한 전심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마침내 헬렌 켈러는 스승을 통해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알게 되었고 의지적 삶을 살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사는 사람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2. 일 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열심히 해야 한다
 젊은 시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하지 못하고 나이 들어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종의 많은 재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못하고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결국에는 후회할 때가 올 수밖에 없음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만사 적당한 기회는 따로 있습니다. 만일 그런 기회가 제때에 붙잡지 못하면 또 다음의 기회를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다시 기회를 잡았다 해도 예전보다 몇 배의 노력과 공력을 들여도 예전의 잃어버린 기회만큼의 효과는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들이 하여야 하리라” 고 말씀 하십니다. 맑고 밝은 날은 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열심히 감당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것에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젊음도 언제나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닫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청지기들이 되어야 합니다.

3. 누구에게나 일 할 수 없는 밤은 찾아온다
 인생의 밤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밤은 반드시 나이 들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나이에도 인생의 밤은 찾아오고, 한창 일할 젊은 나이에도 인생의 밤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을 망각하고 영원히 낮에 속할 것처럼 살다가 정작 깊은 밤이 찾아오면 깊은 후회와 탄식을 합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이 땅에 머무를 것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밤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내 자신의 때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불현듯 인생의 밤이 올 것을 알아, 그 시간이 오기 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사명들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그때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맺는 말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잘 섬기고 바로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되 바로 믿어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요 9:5).
 인생의 밤은 우리 모두에게 어김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지혜로운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 박위근 목사(염천교회 원로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서준권 목사	노문환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서명철 목사	서문석 장로
III 오후 2시	장석남 목사	박두호 장로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 ...잠 3:5-6...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5(3).....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35(성령강림 1)...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사 40:1-5...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헌 Offering	다 함 께
봉헌송 Offering Hymn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설 교 자
*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승구 목사
* 찬 송 Hymn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서준권 목사, 설교: 이종운 원로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29:1-2	인 도 자
찬 송	292(415)	다 함 께
기 도		김광철 집사
성 경	계 2:12-17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버가모교회"	설 교 자
* 찬 송	342(395)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인도, 설교: 장석남 목사

기 도	김남옥 권사	
성 경	벤전 1:3-12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고난 중에 기뻐할 이유” ...		설 교 자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이경화·홍혜란김양안박수강

설 교 서준권 목사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김현정11	송재근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총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랜드벨	송재월	
III부	임마누엘	임범창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유태양	최수황	박수강	윤주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교자 하시니라(요 9:3)		
영어예배	예루살렘	심상희		이승민1	지난주 성구			
수요 I 부	호 산 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수요 II부	은 빛	박태경	김윤지	홍혜란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인터넷 영상

교회 소식

◆ 모임

1. 비전2020 / 4일(주) 오후3시30분 802호
2. 6월 스테반 월례회 / 4일(주) 오후3시30분 601호

◆ 알림

1. 101호 예배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2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에바다부 예배: 주일 오후 1시-2시30분
3. 603호 예배
소망부: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4. 609호 예배
디아스포라부: 주일 오후 1시-2시
5.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6. 706호 예배
영아, 유아,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20-12시30분
7.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주일 오전 11시20-12시30분
8. 금주 수요일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9. 의료 상담 / 노제현(안과), 김동건(치과) 주일 오전 10시40분 - 오전11시까지
1층 서적부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8993-5558
10. 이승구 목사 소개

총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졸업(B.A.)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윤리교육 전공(M. Ed.)

함동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학석사(M. Div.)

영국 스코틀랜드 University of St. Andrews에서 신학석사와 박사(Ph.D.)학위를 받았다

미국 Yale 대학교 신학부 연구원 현재 합신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교수 많은 저술과 논문이 있고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 실행위원장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1025명	314명	292명	1,631명	149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5/28)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5월 28일	헌금 입금	39,217,400	
"	특별예배비		1,015,000
"	말씀봉사비		21,540,000
"	찬양대사례비		11,950,000
"	교회학교교육비, 운영비		2,023,630
"	행사비		120,000
"	급 여		39,624,000
	출 판 비		270,000
	소모품비		1,189,750
	교통통신비		177,050
"	차량유지비		2,656,730
	복리후생비		1,153,200
	환경유지비		200,200
	수선유지비		5,177,100
"	식당운영비		519,600
	합 계	39,217,400	87,616,260

🌳 들을 수 있는 귀

운동장에서 비지땀을 흘리면서 경기하고 있는 축구 선수들의 모습을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가끔 보는 경우가 있다. 공을 차고 있는 선수에 못지 않게 아나운서와 더불어 경기를 해설하는 분의 안타까워하는 음성을 듣다 보면 저런 분이 우리나라에 열한 분만 계시다면 월드컵은 우리 것이 될 게 틀림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물론 이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해설자를 운동장에 내세워 보면 그들의 실축은 보지 않아도 뻔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고언을 무시하거나 자기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말이 많으냐고 한다면 이 세상엔 아무런 발전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정치하는 이들을 비롯해서 각계 각층에서 남보다 앞서 달리고 계신 분들에게 여기저기서 해설자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의 고언이 들릴 때마다 겸손히 들을 수 있는 귀와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 민족의 장래가 밝아질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종운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